

Global Trend Report

- EXHIBITION

TITLE 전시회명	Salone del Mobile 2005_analysis data
PLACE 장소	Milan, Italy
PERIOD 기간	2005.04.13 – 2005.04.18
PAGE 페이지수	35 pages
DATE 작성일자	2005.04.29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Material & Color & Patten & Lighting Trend Analysis

2005 Total Interior & lifestyle Trend Aspec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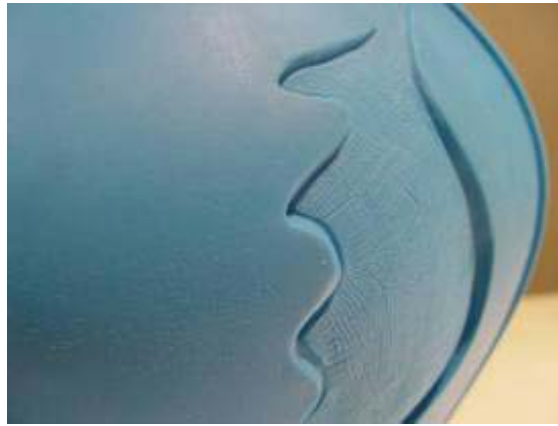
이 리포트는 2005년 Milan에서 열린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분석 자료입니다. 2005년 가구, 조명 등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재, 칼라,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 및 이미지를 사용 하실 때에는 반듯이 IDTC의 출처를 밝혀주셔야 함을 말씀드리며, 그 외 분석 데이터와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IDTC 라이프스타일 여수연 선임연구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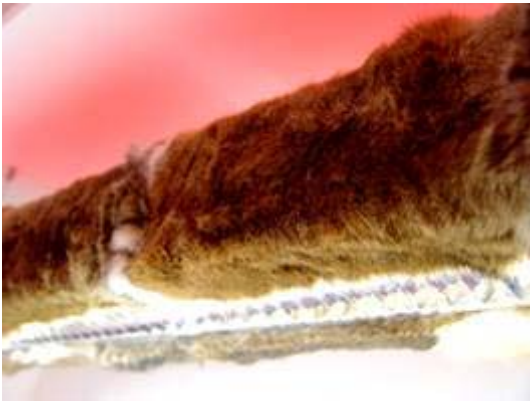
Colorfully transparent plastic , Monochrome-dyed plastic, High-pile surface, Aluminium, Leather, Lacquer and Power coating, High-tech materials form carbon to textiles woven , Smooth surface, Silicon, Wood, polyurethane, Ceramic, Polycarbonate, Felt, soft gel



moooi



droog



DARK



gewoon



Moroso

제품의 균을 넘나들며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의 탐구가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제품들이 패션처럼 되면서 원래의 모습에 옷을 입히듯, 가죽, 털, 패브릭 등 다양한 소재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다. 특히 실리콘 소재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의 소재들이 확대되었고, 정형화되지 않고 유연한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무, 종이, 페브릭, 펠트와 같은 자연소재와 네츄럴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폴리에스터와 같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Material

Silicon



Delux



Quinz & milan



FOSCARINI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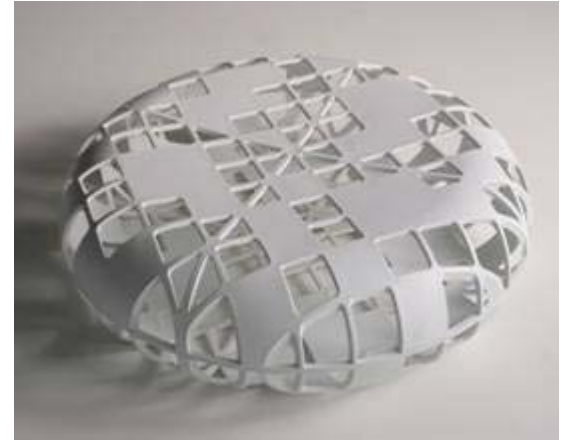
Colorfully transparent plastic , Monochrome-dyed plastic, Polycarbonate



maxdesign



Moroso



Sawaya & Moroni

Material

polyurethane

Felt



Bart design



Salone setlite



gewoon

Color

Red, Yellow, Orange, Green, Blue 등 화려하고 원색적인 칼라의 화려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양적인 Zen(Zen) 스타일의 모던하고, 무던함의 모노톤의 색상은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많이 퇴색되었다. 파스텔 톤의 칼라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보이지만, 주를 이루지는 않고 있다.

Vivid 느낌의 칼라들은 더욱 생동감있고, 눈부시며, 밝고 화려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며 경쾌한 라이프스타일을 불러 일으킨다. 원색 중에서도 차가운 원색 계열보다는 따뜻한 원색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자연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네츄럴한 칼라가 올 해의 특징이라 하겠다.

2005년도의 인테리어, 가구 칼라 트렌드는 포근하고 따뜻한 경쾌함으로 예측된다.

smool



MISSONI HOME

moooi



maxdesign



Adrenaline design



Bart design

Pattern

화려하고 다양한 칼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패턴들도 더욱 대범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 및 조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패턴의 경향도 더욱 네츄럴해진 표현으로 자연의 영상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패턴들은 어떤 첨가의 장식이 없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종이나 나뭇결등 네츄럴한 소재를 그대로 살린듯한 사실적인 패턴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자연의 패턴들의 연결성과 디테일은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은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세련되어진 다크 패턴은 따뜻한 칼라와 함께 Emotional sensuality를 보여주고 있다.



MISSONI HOME



Design London



Zona Toronona_ Texture & Materials

Patten

Moroso



Zona Toronona_ Texture & Materials



moooi



Design London



Design London







Cloud

Designer : Frank O. Gehry

Material : polyester looks like strong fibrous paper

www.belux.com



BPL

Designer: Camilla Diedrich

Material: polyester fabric.









Lighting

LED, 광섬유를 이용한 Lighting의 다양해진 디자인

테크놀러지의 발전과 함께 조명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LED와 광섬유와 같은 최첨단의 새로운 라이팅 기술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출하는 회사들이 매우 주목을 받았고,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었다. 그리고 실리콘과 테크노젤과 같은 유연한 재료를 조명들과, 자연스런 네추럴함이 돋보이는 디자인과 재료들로 더욱 풍성해진 조명 산업의 발전을 볼 수 있다.



Paris Masion & Object 2005



Space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갈망... 자유로움... 마주보고 소통하기...

인간은 끊임없이 숨쉬고 살고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해 탐구를 한다. 올 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Vitra와 Koziol에서 나온 모듈로된 제품이다. 한 개의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 원하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Vi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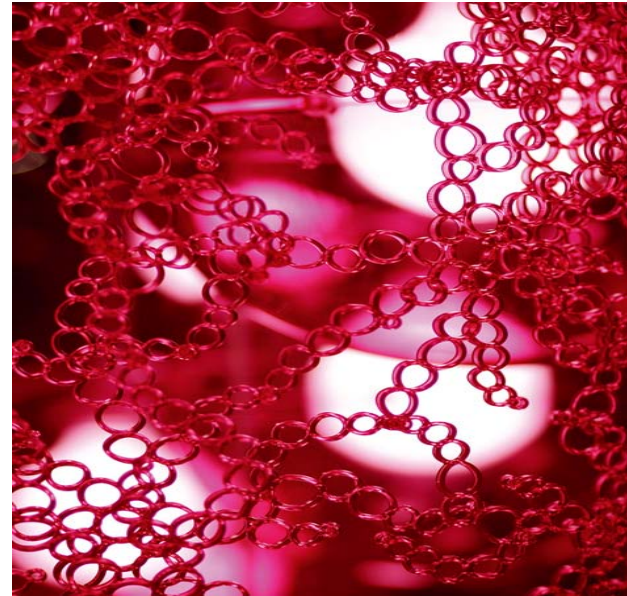
6Algues

Designer : Ronan & Erwan Bouroullec

White, black, green, red 4가지 칼라가 있으며, 한 개의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 원하는 공간의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www.vitra.com

Koziol



Ideals for friends. Made in Germany. KOZIOL, leader in gift ideas and interior design.

www.koziol.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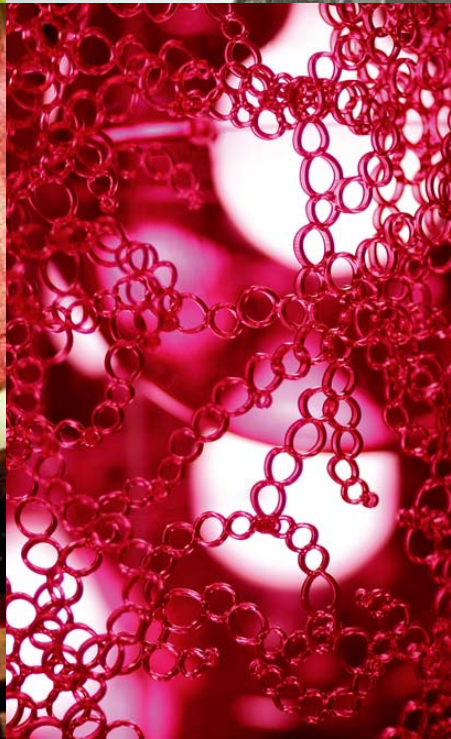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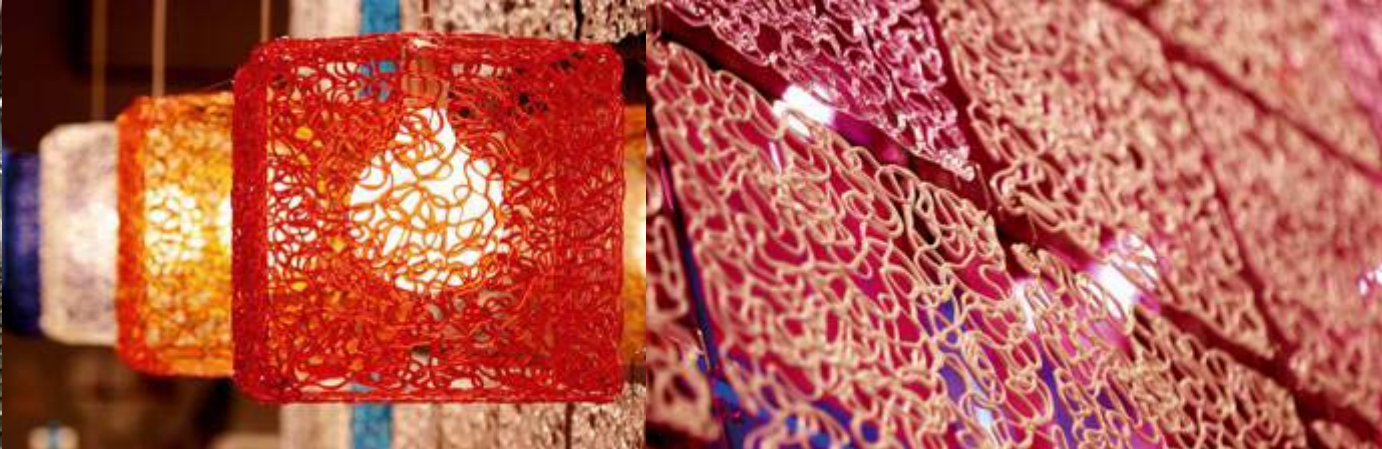


다양한 칼라의 집게 모양의 플라스틱 모듈들이 모여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있다.















2005 Furniture & Interior Trend

more natural

자연이 주는 편안함,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제품들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 종이나 나뭇결 등 네추럴한 소재와 자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꽃, 새, 잎사귀 등의 패턴들이 더욱 사실적으로 그대로 제품에 담겨있다. Moroso의 테이블에 프린트된 패턴들, droog 디자인의 플라터너스 나뭇잎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파라솔, 토끼 모양의 카페트, givannetti사의 나팔꽃 모양의 의자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명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꽃의 형상들과 자연에서 가져온 모티브의 형상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like fashion

가구가 옷을 입고 있다. 마치 패션쇼장에서 다양한 의상을 입고 뽐내는 모델처럼 가구가 옷을 입고 입고 있다. 가구를 씌어주는 옷의 패턴과 소재에 의해 같은 모양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Moroso사의 최근 제품들의 모습들을 보면 특히 이런 경향을 잘 말해주는데 doll chair 라는 제품이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외에도 마치 술을 두른것과 같은 모습을 한 쇼파와, adrenalina design사의 청바지 소재인 데님 소재로 만든 의자, 유명한 조명회사인 dark사의 모피를 두른 조명 등 그 모습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funny joke

제품이 이야기를 한다? 최근 나타난 제품들의 경향들을 보면, 제품 자체에 개성과 인격을 부여하여 하나의 작품성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개체가 가지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려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전쟁의 공포와 불경기 등의 현상에 대한 반응에 대응하는 위트있고, 유머러스한 제품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edra사의 신제품인 mummy와 Jannette의 이름을 가진 chair이 그렇고, maxdesign의 so happy와 i'm dreaming을 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들 제품들은 한 개의 객체로서도 즐거움을 주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그 즐거움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대한다. 마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익살스런 모습들이다.

new wave of living

이번 전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독일 moll사의 맞춤형 학생 책상과 제품들은 인간공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와 특성 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책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Rotalliana사의 multi pot은 소형화된 가전 제품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충전할 때의 불편함과 실내 인테리어의 불쾌함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모듈의 구성으로 연결되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는 vitra와 Koziol의 제품은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큰 양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LED와 광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조명 디자인은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있다.

more natural



Salone satile



Moroso



givann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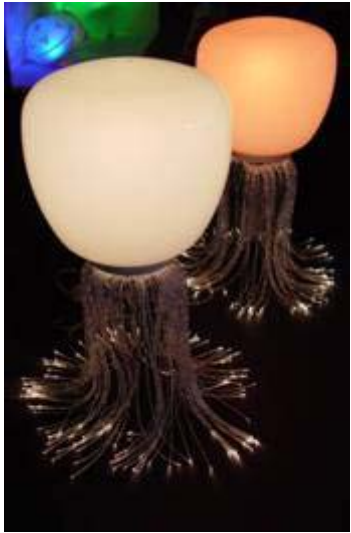


droog



moooi

more natural



like fashion

Bart design



adrenalina



dark

Moroso



N.A.ds



gaewoon



funny joke



edra



adrenalina



black + blum

maxdesign



new wave of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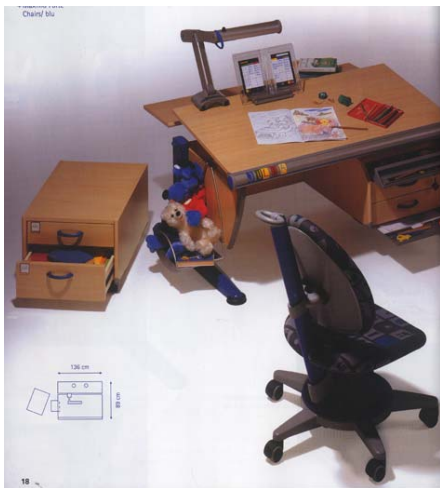
campeggi



ahrend



Rotaliana



moll



new wave of living



Vitra.



Kozi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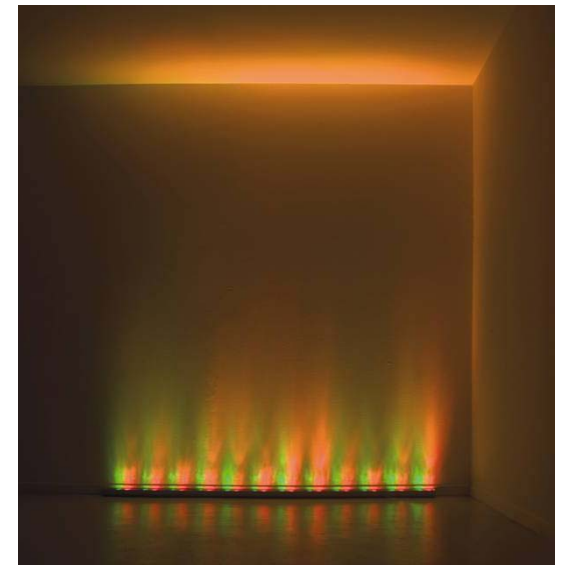
gewoon



Viabizzuno



Eltek



Artemide